이베로아메리카 제7권 1호(2005)

쿠바의 독립 투쟁에 관하여

권 미 란*

<Abstracto>

El siglo XIX representa un momento crucial en el desarrollo de las colonias españolas. Durante los anos 1810-1825 las colonias españolas del Nuevo Mundo se levantaron y se independizaron. Sólo permanecieron Cuba y Puerto Rico de lo que una vez fuera el gran imperio español de las Indias Occidentales. Cuba surgió gradualmente como la mayor productora de azúcar del mundo y su contribución al tesoro español la hacía una posesión importante para la monarquía española en bancarrota.

Cada vez más las ideas de los criollos estaban en contra de la política colonial de España y aún al entrar en contacto con las condiciones de otros países, paticularmente los Estados Unidos. La lucha cubana por la independencia estaba seriamente obstacularizada por un fallo en confrontar de frente el problema del papel de los negros y la esclavitud, por disputas y celos, entre los líderes, por escasez crónica de abastecimiento y munición y por la poca habilidad en conseguir apoyo a la revolución. Entre muchos prominentes líderes, José Martí con su Partido Revolucionario Cubano pudo conseguir la unidad entre tantos intereses en conflicto gracias a su gran contribución. El proceso de liberación cubana duró siglos, pero el ritmo está condicionado por el grado de madurez que logre el pueblo colonizado en el concepto de independencia, la cultura que alcance y el trato que la metrópoli dé a los colonizados.

* 부산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E-mail : kmran@pufs.ac.kr

En nuestro trabajo hemos expuesto, someramente, las vicisitudes que, formando una conciencia popular, desembocaron en una guerra conta Espana, con la cual, con una justificación demagógica, intervinieron los Estados Unidos.

Key Word: Guerra de Cuba / Pacto de Zanjón / José Martí / Partido Revolucionario Cubano / Explosión de Maine
주제어: 쿠바전쟁 / 산혼협정 / 호세 마르띠 / 쿠바혁명당 / 메인호 폭발

Ⅰ. 서 론

콜롬버스는 1492년 신대륙을 발견하여 쿠바에 후아나(Juana)라는 이름을 주었다. 그후 후아나섬은 중남미라는 대륙을 정복해 나가는데 큰 디딤돌 역할을 했으며 또한 본국의 위기를 타개하는데 있어서도 크나큰 정신적, 실체적 믿음이 되었다. 그러나 프랑스의 자유주의혁명과 미국의 독립 쟁취등 국제적인 요인으로 인해 중남미에서 독립투쟁이 일어났고, 쿠바와 뿌에르또 리꼬(Puerto Rico)만 제외하고 중남미 대부분 모든 지역들은 스페인의 통치권에서 벗어났다. 19세기 중엽부터 쿠바와 미국의 무역거래에 스페인의 개입은 자주 장애적 요소로 나타나기 시작하자 본국으로부터 자유롭게 활동하고자 하는 욕구를 생겼다. 민중운동에 쿠바인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서서히 쿠바의 독립운동이 기지개를 하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해방투쟁으로 전개되면서 스페인 측에 쿠바를 하나의 지방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고 노예제도 철폐를 부르짖었다. 그러나 스페인의 식민지 정책은 갈수록 강력한 군대주둔을 통하

여 엄격하면서 통제적인 정책으로 일관하였다. 차별과 무관심으로 대응하는 스페인의 태도에 쿠바 주민들의 마음은 오로지 자주독립 이루는 길만이 자유로운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

흔히들 쿠바독립을 스페인과 미국사이 줄다리기 외교전쟁을 치루는 도중 아바나항구에서 미국 순양호가 폭발하여 미국과 스페인사이에 전쟁이 발발하였고 그 진행과정에서 파리 평화조약의 결실로 쿠바가 독립이란 선물을 받은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 그러나 쿠바독립의 이면에는 수세기에 걸쳐 독립을 갈망했던 쿠바인들의 성숙한 민족의식과 인종과 사회계층을 초월하여 마음이 하나가 되고자 노력했던 쿠바인들의 정성이 숨어져 있다. 세월과 시대가 변해도 식민지에 대한 자세와 대우를 변경시키지 않은 채 식민지 이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던 스페인에 대해 정면으로 반발한 것이다. 독립투쟁의 한 방법으로서 무장항쟁을 시작했던 쿠바인들의 희생의 댓가로 얻어낸 것이 바로 쿠바독립임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역사적 사실이다.

본 연구는 미국과 스페인의 전쟁 이전에 쿠바의 독립을 추구하며 시작했던 민중항쟁을 분석하면서 쿠바와 관련국들의 대응과 방향을 관찰했으며 또한 독립형성 과정에서 호세 마르띠(José Martí)의 역할과 쿠바인들의 해방운동 참여를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Ⅱ. 사회적 배경

산또 도밍고(Santo Domingo)의 사탕수수 산업이 붕괴된 이후 쿠바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설탕량을 생산해내는 국가가 되었다. 쿠바의 설탕산업은 스페인 경제에 크나큰 도움을 주고있음은 물

론이고 정신적인 디딤돌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방대한 사탕수수 농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노동력은 턱없이 부족하였다. 쿠바는 노동력을 신체적으로 나약한 원주민들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어 점차 아프리카로부터 흑인 노예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후 토마스(Hugh Thomas)에 의하면 남양회사(South Sea Company)는 1740년과 1780년 사이 일인당 144 뻬소(peso)의 가격으로 5000명의 노예를 쿠바에 팔았다(Thomas 1973-1974, 50).

영국의 노예무역이 폐지된 이후에도 비공식적인 루트로 더 많은 아프리카 노예들이 쿠바에서 일하러 들어왔다. 흑인노예들은 오랜 기간 동안 본국으로부터 비인간적인 대우와 인종차별을 받았다. 19세기 초 이에 울분을 한 호세 아뽄떼(José Aponte)가 흑인들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킬 계획을 꾸미다가 발각되어 처형을 당한 적도 있었다.

한편 쿠바의 백인 사회에는 스페인 출신인 본토인(peninsulares)과 중남미 태생인 끄리오요(criollos)들로 나누어져 있었다. 본토인들은 친 스페인계로 주로 관료이거나 대농지를 운영하는 지주들로서 구성되었고, 본국에서 주는 혜택을 누렸다. 이에 반해 대부분의 끄리오요들은 스페인정부의 정책에 대해 불만을 느끼는 자들이었다. 끄리오요들은 일반적으로 목축업, 담배, 커피, 설탕등의 사업에 종사하거나 전문 업종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상거래함에 있어서 스페인 본국을 거치지 않고 다른 나라들과 자유롭게 무역하기를 원했고, 특히 미국과는 거리의 근접함으로 비밀거래가 성행하곤 했다. 일찍이 일부 끄리오요들은 본토출신인 관료들과 장교급 군인들의 부정부패로 인해 비효율적인 국가운영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쿠바의 자치제를 희망했고 미국을 모범삼

아 독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분명한 반스페인계였다. 다른 중남미 국가들이 독립전쟁을 치루는 동안 쿠바의 반정부세력들은 혁명군들과 의기투합하여 독립을 획득하기를 원했다. 1825년에는 멕시코, 베네수엘라가 이런 쿠바의 혁명군들을 도와주기 위해 원정을 계획한 바도 있었다. 그 당시 노예제도를 인정하던 미국측은 쿠바의 독립운동이 노예해방과 연계되어 자국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까 우려 끝에 쿠바와 연결되는 모든 움직임을 저지했다.[1] 이처럼 쿠바 백인사회의 구성원들의 엇갈리는 이해관계로 시작되어, 스페인 본토인들은 독립운동의 저지자들로서, 끄리오요들은 독립운동을 지지하는 세력으로 바뀌어 서로 운명을 달리하게 되었다.

점차 1820년 이후부터 간간히 쿠바의 해방운동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쿠바에서 인구증가와 더불어 설탕산업의 규모를 확대시켜 나갔다. 다음 자료들에서 마누엘 모레노 프라히날스(1978, 73-74)가 보여 주듯이 쿠바는 설탕수출을 스페인보다도 몇배로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쿠바의 설탕 수출>

	미 국 (톤)	스페인 (톤)
1850	26.9	7.6
1860	58.4	7.7
1870	46.2	5.3
1880	81.5	2.9
1890	80.6	8.1
1894	91.4	2.1

자료: Moreno Fraginals 1978, 73-74.

1) 미국은 쿠바 반정부세력을 공식적으로 지지하진 않았지만 쿠바가 미국의 무역활동의 반경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1842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쿠바는 1,007,624명 중 448,291명은 백인이며 152,838명은 자유유색인종, 436,495명은 흑인이 차지한다 (Forner 1975, 14). 이처럼 흑인인구는 쿠바전체의 40 %를 차지하였고 흑인수의 급증은 점차 백인들에게는 사회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요인으로 느껴졌다. 특히 쿠바 대농지주들은 흑인들이 노예제도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켜 쿠바의 독립을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에 대해서 초창기에는 끄리오요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백인들은 흑인들이 주도하는 독립운동을 저지하는데 앞장섰다. 그러나 점차 끄리오요들은 노예제도를 주장하는 대농지주들에게는 스페인 식민지정책이 보호 장치로 생각될 수 있지만 외국과 상거래를 하고 있는 자신들에게는 본국정책이 제재 또는 압박을 가하는 도구로 느꼈다. 그들은 쿠바가 스페인외 다른 나라들과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 스페인측에서 제공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시장에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했다. 이처럼 스페인의 억압적인 조세정책과 규제에 불만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 역시 본토인들과 같이 자유로운 흑인들을 원하지 않았다. 더더욱 흑인들이 주도하는 독립운동에는 가담할 뜻이 없었다. 한때 스페인정부가 흑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노예제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일부 쿠바의 대농지주들은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이웃나라 미국에 합병을 시도하려 했다. 그러나 미국이 남북전쟁이후 노예제도 폐지를 선언하자 쿠바와 미국의 합병론은 동기를 잃고 사그라 들었다.[2)]

2) 미국내에서는 남북전쟁이후에도 노예제도 지지자들은 쿠바와의 합병 움직임을 계속하였다. 그들은 쿠바에 목화경작지를 확대시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킬수 있다고 판단했다.

쿠바 독립운동의 변수가 되었던 끄리오요들의 태도가 쿠바내 태동하고 있는 민족적 자각심에 격려 차원이 아닌 핵심적 주동세력으로 전환하면서 쿠바의 운명은 오로지 독립쟁취 뿐이라는 생각에 모아졌다.

Ⅲ. 쿠바 전쟁

미국의 독립, 프랑스의 자유주의 혁명이념 전파, 아이티공화국에 흑인들의 정권도전과 쟁취, 중남미 신생독립국가들의 희망적인 메시지를 들으며 쿠바 또한 스페인 본국으로부터 자치제실시를 요구했다. 일부의 과격 혁명주의자들이 본국으로부터의 분리를 요구하였지만 대다수의 개혁주의 성향의 자유주의자들은 스페인의회에서 쿠바의 대표성, 쿠바내에서 헌법 유효성, 세제법의 공정성, 노예제도폐지, 관직 채용의 공정성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스페인 정부는 쿠바에서 선출한 대표들과 본국에서 뽑은 대표들로 구성되는 정보위원회(Junta de Información)를 통해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했으나 쿠바의 소수권력층 반대에 부딪혔다.

1. 10년 전쟁 : 산혼(Zanjón)협정

1868년 스페인에는 이사벨 2세 여왕의 퇴위를 요구하는 9월 혁명(Revolución de Septiembre)이 일어났다.[3] 이에 대해 쿠바의 민주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은 스페인식민지정책에 큰 변화가 일

3) 네덜란드의 오스텐데(Ostende)에서 스페인의 민주주의자들과 , 자유주의자들은 9월 명예혁명을 통해 이사벨 2세를 퇴위시키며 그후 보통선거 실시와 헌정의회 구성할 것을 합의했다.

어나기를 내심 기대했다. 같은해 8월4일 쿠바의 라스 뚜나스(Las Tunas)에서 법학박사이자 끄리오요출신인 마누엘 데 세스뻬데스(Manuel de Céspedes, 1819-1874)가 혁명위원회에 참석하여 봉기를 통해 스페인과의 관계단절을 주장했다(Le Riverend Brusone 1981, 66). 그 후 세스뻬데스는 반란을 도모하면서 30명의 노예를 해방시키고 야라(Yara)로 향했다., 10월 10일에는 세계 각국에 흩어져있는 쿠바인들을 대상으로 쿠바 혁명위원회에서 채택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쿠바인들이 마치 독립선언문으로 부르고 있는 이 성명서는 그동안 쿠바인들이 겪었던 고통과 서러움을 설명하며 1867년 스페인 본국정부가 상거래 이득금에서 세금을 부당하게 5%에서 12%로 인상시키고 공정하지 못한 예산 분배를 비판했다. 바론 페르난데스(1993, 21-22)의 조사에 따르면, 쿠바의 예산으로 총합계 89,900,000 뻬소를 사용하면서 전쟁대비 예산으로 23,600,000 뻬소, 해군에게는 10,650,000 뻬소, 쿠바 통치비용으로 5,600,000 뻬소, 학교, 병원, 도로, 공업장려의 명목으로는 3,125,000 뻬소를 할당하였다. 즉, 총예산에서 44%가 쿠바지역의 방어비로 사용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복지 분야에는 4% 정도만 포함시켰다. 나머지40% 는 바로 쿠바인들을 탄압하는 목적으로 사용한 것과 같았다. 스페인 정부는 쿠바를 위험한 요소가 존재하는 지역으로 구분하였고 주민 복지보다는 우선적으로 체제방어에만 주력한 셈이다.

세스뻬데스는 37명의 주종자들과 마르놀(Márnol), 깔리스또 가르시아(Calixto García), 안또니오 마세오(Antonio Maceo), 막시모 고메스(Máximo Gómoz)가 이끌고온 백 여명들과 합류하여 항거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스페인 당국은 1869년 1월 도밍고 둘세

(Domingo Dulce)장군을 쿠바의 지구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둘세 장군은 도착즉시 쿠바의 자유화 조치를 선언하며 노예제도를 철폐한다고 발표하였다. 집회와 인쇄의 자유조치가 실시되자 마자 쿠바의 선도적인 역할을 맡은 혁명가 호세 마르띠(José Martí)는 학생신문에 10월10일 (Diez de Octubre)이란 제목으로 야라의 외침 날짜를 상기시키는 글을 싣기도 했다.

쿠바 반란군들이 혁명의회 구성, 대통령 선출, 헌법제정을 하는 동안 스페인 정부는 앞으로 출생하는 모든 노예들은 자유인이 된다고 발표했다.[4] 1873년 자유주의적 진보성향의 스페인 제1공화국에 대해 기대한 바가 컸지만 쿠테타가 발생하자 쿠바독립의 진행과정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쿠바에 또다시 기본인권 탄압이 시작되었다. 그에 대해 막시모 고메스 장군은 토지 태우는 전쟁(Guerra de tierra quemada)의 시작을 선포하여 추수한 모든 곡식과 제당기를 불태우라고 지시했다. 1876년 11월 마르띤네스 깜뽀스(Martinez Campos)장군이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아바나에 도착했다. 오랫동안 전쟁에 시달려 군사적 사기가 많이 저하되었다고 판단한 고메스장군은 깜뽀스장군에게 전쟁을 중단할 의사를 보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5일전 마르띤네스 깜뽀스장군은 성명서를 통해 무장항쟁을 한 노예들은 남녀 구분없이 희망에 따라 자유인이 된다고 선언했다. 양측은 산혼(Zanjón)협정에 서명을 하면서 그동안 끌어왔던 10년 전쟁은 종결시켰다.[5]

---

4) 1868년 9월 17일부터 새 법안이 공포되는 사이 태어난 모든 노예들은 주인에게 125 뻬소를 지불함으로서 자유인이 될 수 있었다.

5) 협정체결날 청동거인 <Titán de Bronce> 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안또니오 마세오 산혼협정에 반대하는 바라구아(Baragúa)선언을 낭독했다. 그는 쿠바혁명의 기본 목표인 독립과 노예제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는한 항복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혼협정으로 양측은 승자도 패자도 아니었다. 이미 추방당했던 쿠바인들은 자기나라로 되돌아올 수 있었고 쿠바는 뿌에르또 리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한 지방으로서 스페인 의회에 참석할 수 있는 대표성까지 주어졌다. 앞으로 쿠바에게는 노예제 완전 폐지를 위해 노력하는 숙제가 남게 되었다.

2. 제2의 독립전쟁 : 호세 마르띠(José Martí)

산혼협정이후 쿠바에는 전쟁과 갈등이 중단 되지 않았고 노예제폐지를 위한 혁명 활동이 지속되었다. 쿠바 자치주의 정당(partido autonomista cubano)이 스페인 의회에 출두하여 자치제도를 제안했다가 거부당하자 쿠바인들은 박탈감마저 느꼈다. 스페인의 쿠바에 대한 예우는 과거와 다름없는 수준이었다. 다시 이들은 산혼협정에 불만을 가졌던 자들과 합류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자각적 민족의식이 고양되면서 투쟁방향이 확실해졌다. 이 긴 쿠바 항쟁에서 호세 마르띠의 눈부신 활약은 독립투쟁의 강도를 잘 보여주었다.

마르띠는 1853년 1월 28일 하바나에서 출생한 전형적인 끄리오요이며 쿠바독립을 위해 투쟁하는동안 그의 뒤에는 이름을 대신하는 수 많은 수식어들이 따라 다녔다. 사도(El Apóstol), 위대한 시인, 작가, 정치조직의 천재등의 명칭들이 그의 활약을 뒷받침하듯이 마르띠는 쿠바독립사에서는 영웅과 같은 존재였다.[6] 일찍이 마르띠는 스페인 정부로부터 격리되어 삐노스(Los Pinos)로 추방당했고, 쿠바로 돌아오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1880년 스페

6) 마르띠 아버지는 스페인 발렌시아(Valencia)출신인 쿠바의 중사였으며, 어머니는 산따 끄루스 데 떼네리페(Santa Cruz de Tenerife)출신이었다.

인 당국의 눈을 피해 뉴욕으로 건너갔고,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쿠바 혁명그룹을 창설하였다. 그는 중남미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쿠바인들을 혁명에 가담시키기 위해 설득을 도왔다.[7]

마르띠는 1892년 1월5일 쿠바 혁명당(partido revolucionario cubano)을 창당하였다. 그리고 이정당을 통해 그동안 쿠바를 독립시키기 위해 고안한 생각과 방법들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는 스페인과 전쟁을 치루는데 있어서 외국에 거주하는 쿠바인들의 활동을 총괄할 필요성을 느꼈다. 빠른 군사승리로 이끌어내는 방법을 모색했고, 앞으로 설립될 쿠바정권에는 정치적, 역사적 요인들을 묶을 수 있는 실질적인 관계가 추구한다든가, 전쟁지원금 준비를 위해 공급원을 물색했다. 쿠바혁명당의 정관에는 정당에 기부하는 개인들과, 각 지역의 그룹으로 조직된 클럽들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다.[8] 마르띠는 정당의 활동 영역 안에 모든 계급의 쿠바인들이 계급을 초월해 동참하기를 희망했지만 이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았다.

쿠바의 새로운 국가설립이라는 혁명과업 앞에 수천명이 넘는 쿠바의 추방된자들이 여러계파로 나눠져 반목과 갈등으로 지내고 있었다. 그 안에는 흑인 지도자의 능력을 부정하는 자도 있고, 노동자출신의 사회주의자들을 배제하려는 자도 있었다. 마르띠는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계급과 인종에 대한 편견을 모두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서로 다른입장에 처해 있어도 목표가 동일하기에 쿠바인들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

7) 그는 까라까스(Caracas)신문에 글을 연재하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Buenos Aires)의 국가(La Nación) 신문에 미뜨레(Mitre)라는 가명으로 글을 실었다.

8) 각 클럽에는 의장단 이사회의 구성원인 의장이 있으며 이사회는 당원들과 본부의 중간역활을 맡았다.

마르띠가 혁명당의 선전을 하기위해, 뉴욕에서 빠뜨리아<조국, Patria>라는 신문을 발간했을 때 담배업계 종사자들이 제 1회 발행비용을 모두 지원했다. 공개적으로 이 신문이 정당의 기관지라고 언급하진 않았지만, 쿠바혁명당의 기본 방침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입장을 첫 페이지에 실었다. 이 후 이신문은 마치 쿠바 혁명당의 기관지처럼 알려졌다.

마르띠는 예전의 혁명가들과는 달리 정당조직이 완성될 때까지 군부의 지도자들을 물색하지 않았다. 정당의 조직력이 갖추어졌다고 판단된 뒤 평소 군 경험과 통솔력을 갖추어 해방투쟁 군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한 막시모 고메스를 찾아갔다. 동의를 받자마자 마르띠는 꼬스따 리까(Costa Rica)에 기거하고 있는 안토니오 마세오에게도 투쟁이 합류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 세사람은 외국에 나가있는 군 원로들과 함께 군사계획을 준비하였다. 마르띠는 예전의 독립투쟁은 외부와 내부사이 실질적인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패했다고 생각했다.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고, 외부에 있는 군지도자들을 먼저 소집했고, 그다음 순서로 지역별로 쿠바내부의 지도자들을 접촉하였다.[9] 또한 지역 지도자들을 선출해가면서 혁명을 위한 자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필라델피아(Piladelpia), 시카고(Chicago), 키 웨스트(Key West)등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다.[10]

항상 마르띠에게는 쿠바가 설탕이라는 한가지 품목을 미국에

9) 마르띠는 쿠바내부조직으로 지방과 지역에 해당하는 지도자들을 선출하였다. 바르똘로메 마소 장군(Bartolomé Masó)는 만사니요(Manzanillo), 홀리오 산길리 장군(Julio Sanguily) 은 아바나, 프란시스코 까리요 장군(Francisco Carrillo)은 바야스(Las Villas)를 맡기로 하였다.

10) 1892년 7월 담배업계 종사자들은 한 주당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25센트-2.5불)을 혁명자금으로 내놓는데 합의했다.

전적으로 의지하며 수출하고 있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그렇기에 쿠바내 실력 행사자들이 미국과의 합병을 유도하거나 쿠바 혁명군과 연계시켜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마르띠는 절대적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였다. 그는 쿠바의 주권과 독립 쟁취는 쿠바인들의 힘에 의해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제국주의적 야심을 경계한 것이다.

1895년 2월 24일 산 띠아고 데 쿠바에서 75Km 떨어진 마을 바이레(Baire)에서 동쪽, 서쪽, 중앙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바이레 외침"(Grito de Baire)계획을 세웠지만 사전에 계획이 노출되어 반란군측 지도자들이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11] 막시모 고메스는 쿠바에 돌아와 그 당시의 처참한 모습을 안또니오 마세오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Forner 1975, 38).

> :쿠바에서 대포연기를 볼 수 있다.
> 우리 동료들의 피가 땅위에 흐르고 있다.
> 우리는 여하튼 어떤 곳이라도 빠져 나가야한다.

우리는 이 편지속에서 쿠바혁명군대의 조직력이 흐트려졌음을 상상할 수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스페인 사가스따(Sagasta)정부는 9천 여명의 군대를 쿠바로 보내고 더욱 더 강경한 자세로 나오기 시작했다. 마르띠는 산또 도밍고에서 고메스와 함께 쿠바가 임해야 하는 전쟁의 기본방침을 담은 몽떼 크리스띠(Montecristi) 선언서를 작성하였다. 즉 쿠바전쟁은 1) 문명화된 전쟁이며, 2) 승리를 위해 흑인들의 참여가 필요하며, 흑인이 협박이 된다는 비난

11) <바이레의 외침>이 일어났을 때 쿠바의 군대 최고 지도자인 막시모 고메스는 산또 도밍고에 있었고 안또니오 마세오는 꼬스따 리까에 있었다.

은 스페인 체제에서 혜택 받은 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로서 혁명에 대한 두려움을 확대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왔다. 3) 전투에 임하지 않는 스페인인들은 복수, 추적, 강탈의 표적이 되지 않는다. 안된다. 4) 혁명에 호의를 나타내는 자에게는 개인의 재산을 존중한다. 5) 혁명은 쿠바에 경제 이득이 되는 새로운 생활을 이끌어 올 것이다(Forner, 39-40). 이선언문에서 게릴라군들에게 쿠바자치제 언급을 피하며 독립을 직접 언급했던 부분은 쿠바의 권리를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임을 알리며 정신적으로 집중하여 전쟁에 임해줄 것을 요구하는 메시지였다. 쿠바 독립을 위한 행보가 더욱 빨라진 것이다.

3. 1895년 이후의 전쟁 : 까노바스(Cánovas)의 암살

호세 마르띠는 고메스 장군을 따라 도스 리오스(Dos Rios)에서 정부군대와 대립하여 치열한 전쟁을 치루게 되었다. 마르띠는 (1946, 271) 멕시코 출신 친구인 마누엘 메르까도(Manuel Mercado)에게 보낸 서신에는 <매일 나는 조국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위험속에 있다>고 표현하며 쿠바가 스페인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필요하지만 미국이 스페인대신 쿠바를 지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잠복되어있는 군대에 의해 죽음을 당했지만, 마르띠는 쿠바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몸을 던진 영웅이었으며 쿠바에 대한 그의 충정심은 모든 게릴라군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마르띠의 사도주의적 정신은 글이나 시등에서 접할 수 있듯이 그의 감동적인 삶은 쿠바가 독립을 쟁취하는 그날까지 지속되었다.

1895년 마르띠네스 깜뽀스장군은 다시 쿠바 지구사령관으로 임

명되었다. 그가 몰고 온 원정대는 6월에 52,000명에서 12월에는 113,000명으로 2배나 불었다(Serrano 1984, 24). 깜뽀스는 두 번째로 쿠바에 돌아왔을 때 받은 인상을 까노바스 수상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Fernández Almagro 1974, 249).

> "겁쟁이까지도 반란하는 호족들의 명령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골의 오두막집들을 지날 때 남자들이 안 보여서 여인네들에게 남편이나, 아들의 안부를 물어보면 그녀들은 표독한 얼굴로 대답을 합니다. <산에 아무개와 함께 있지요.>"

마르띠네스 깜뽀스 장군은 1895년의 쿠바 사태는 20년전의 쿠바 사태보다 더 심각하며 반란군들은 대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모두 쿠바인들의 독립투쟁 동참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막시모 고메스장군은 전쟁목표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확대 시켰다. 일명 "땅 태우는 전쟁"(Guerra de Tierra Quemada)이란 명령을 지시하며 스페인인들에게 식량이 반입되는 것을 금지시켰고, 제당기를 운반하려는 곳에서는 공장을 태울 것을 지시했다. 히마구아유(Jimaguayú)에서는 쿠바정부의 골격을 세우기 위해 사법부, 행정부를 맡을 인물들을 선출하여, 헌법을 통과시켰다.[12]

스페인측에서는 전쟁에서 좋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자 깜뽀스장군의 본국 귀환 명령을 내리고 발레리아노 웨일레르장군(Valeriano Weyler, 1838-1930)으로 교체시켰다. 이것은 깜뽀스장군의 쿠바에 대한 억압정책이 충분치 않다고 주장하는 극단주

12) 대통령직에는 살바도르 시스네로스 베딴꾸르뜨(Salvaor Cisneros Betancurt), 부통령직에는 바르똘로메 마소(Bartolomé Masó)를 뽑으며, 또마스 에스뜨라다 빨마(Tomás Estrada Palma)를 외교부 대표로 선출하고 막시모 고메스를 군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의 식민주의자들의 승리였으며, 일부 쿠바인들의 산혼협정 불이행에 대한 보복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스페인 정부는 평화는 예전처럼 타협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적군을 전멸시킴으로서 쟁취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이제는 반란군에 힘을 실어주는 대중적 지지를 우선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필요했다. 웨일레르 장군은 반란군을 도와주거나, 반란과 연관이 있는자 그리고 스페인 지원병력을 따돌리는 자들에게는 법으로서 엄정 다스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적을 물리치는데 협조를 요청하였다(Barón Fernández 1993, 41-42).

이러한 조치에 대해 미국정부는 쿠바사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즉, 클레버랜드(Cleveland)대통령은 "쿠바의 주권을 스페인측에, 쿠바에게는 합당한 권리를 준다는 전제아래 미국은 쿠바의 즉각적인 평화를 위해 스페인과 협력하겠다."와 같이 화해의 방법을 제안했다(Barón Fernández 1993, 43).

분명 이 공문은 스페인 주권에 관해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보낸 것이지만 스페인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스페인은 반란자들를 제거하는대로 개혁을 실시할 것을 약속했고, 오히려 미국측에 군사적으로 반란군을 지지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몇 달후 미국의 중립이 유지되는 동안 웨일레르는 역사적으로 첫 반게릴라전투을 시작했다. 대중들의 지지를 없애고자 재집결명령(bando de reconcentración)[13]을 지시했다. 이것은 농부들의 경제활동을 중단시켰고, 오히려 반란군들과 단결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즉 이 명령은 수천명의 농부들이 가족을 데리고 자신의 집을 떠나 허술한 창고, 뜰, 버려진 건물안에서 남녀

13) 재집결 명령이란 마을 요새 선밖에 있거나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8일 안에 군대가 주둔하는 마을로 재집결하는 것을 말하며 이 기간 후에는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들은 반란자로 판단하여 재판을 받도록 하였다.

구분없이 식수해결을 못하면서, 군대에서 배급나오는 식량으로 끼니를 떼우는 것을 의미했다. 결집된 40만명중 비위생과 영양부족으로 그 절반의 숫자가 사망하자, 미국에서는 스페인의 비인간적인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캠페인이 일어났다(Barón Fernández 1993, 45-46).

스페인 의회에서조차 이러한 정책을 반기지는 않았지만 쿠바에 평정을 되찾은 후 자치법을 재검토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믿기로 했다.

1896년 12월 4일 흑인 전사 마세오의 전사소식이 전해지면서 까노바스 정권은 성과에 대해 상당히 고무되어 있었지만, 미국은 스페인에 대해 정치적 압박을 계속했다. 그 다음해 3월 4일 미국에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양원에서 쿠바인들의 교전할 권리를 인정하자는 제안을 받아 들였고 우선적으로 일단 쿠바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을 돕자는 안건이 통과되었다. 그 이후에도 쿠바사태가 미국시민들의 재산과 사업에 피해를 주는점을 지적하며 쿠바문제에 대처하는 여러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스페인정부는 쿠바사태를 미국이 겪었던 남북전쟁처럼 한 문명화된 국가가 반란에 대처하는 것과 같다고 답변을 했다. 스페인정부는 미국의 의지를 명확하게 읽어내지 못했다. 그해 여름 까노바스 수상의 암살사건[14]이 발생하였고 사가스따(Sagasta)가 이끄는 자유주의정권이 들어섰다. 스페인의 경제적 위기, 갈수록 압박을 가하는 미국, 군사징집제도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는 시민들의 부정적인 시각, 진전없는 전쟁등의 요인들이 쿠바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었다.

10월 9일 웨일레장군은 라몬 블랑꼬 에레나스(Ramón Blanco

14) 까노바스 수상은 스페인 북부의 구이뿌스꼬아(Guipuzcoa)에 위치하는 산따 아게다(Santa Agueda)마을에서 이탈리아 출신 무정부주의자 안히올리요(Angiolillo)에 의해 암살되었다.

Erenas)로 교체되었다. 사가스따 정부는 쿠바의 정치범들과 정부 앞에 출두하는 반란군들을 사면해 준다고 공표했지만 막시모 고메스장군은 이 조치에 순응하는 모든 장교들을 총살시킨다고 맞공세를 폈다. 11월에는 발표한 안띠야스제도(Antillas)자치제 계획안에는 보통 자유선거 실시, 쿠바인들을 스페인 본토인들과 동등한 권리인정, 쿠바 자치정부의 무역협정과 관세제도에 서명하는 권리를 포함시켰다. 세히스문도 모렛(Segismundo Moret) 해외부장관의 이러한 제안에서 스페인이 이제껏 지켜왔던 쿠바시장 독점을 끝내고 합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쿠바에 대한 주권만이라고 지켜내고자 한 의도를 충분히 엿 볼 수가 있다. 3년간의 치열한 전투와 전염병으로 많은 인명을 앗아간 쿠바사태를 위해 매달 38,000,000 뻬세따(pesetas)를 지불하는 골칫거리를 종식하며, 평화를 되찾고 싶었다. 게다가 쿠바로 인한 미국과의 새로운 마찰을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이조치는 1895년에는 쿠바사태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어서도 1897년 말에는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 반 스페인 여론을 주도해 가는 미국의 언론들과 압력집단들의 요구에 따르듯 미국정부는 아바나 항구(La Habana)에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해 순양함대 메인호(Maine)를 보냈다. 정박한지 20일 되던날 밤 9시 35분 커다란 폭음과 더불어 많은 인명을 앗아가는 사건이 발발하였다. 이제 미국의 스페인에 대한 전쟁선포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Ⅳ. 결 론

우리는 흔히 쿠바의 독립을 미·서 전쟁이후 파리 평화협정에

서 스페인은 제3국의 대열로 밀려 나오며 미국이라는 새로운 제국이 탄생되면서 얻어진 결과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 독립 이면에는 수세기에 걸쳐 쿠바가 자주 민족적이면서 성숙한 국민의식을 갖추어가며 국가와 주권에 대한 개념을 깨달으면서 자국의 독립을 위해 고통과 희생을 감수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 쿠바 종주국였던 스페인에게 19세기 후반부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부터 시작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다방면으로 설득, 종용, 투쟁을 반복하며 독립을 향한 목소리를 내는데는 무단한 노력이 있었던 것이다. 쿠바내부에 존재하는 사회계층간의 이견과 인종차별은 항상 쿠바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데 있어서 장애물로 나타나 빈번히 실패를 거듭하게 되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앞장선 호세 마르띠는는 전형적 중남미의 끄리오요(criollo) 출신으로 쿠바인들의 권익을 되찾는 데에 앞장서서 일했다. 그는 조직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선적으로 쿠바혁명당(partido autonomista cubano)을 창당하였다. 강한 조직력을 앞세워 스페인정부에 맞설 쿠바의 항쟁세력을 구축하는데 성공한 마르띠는 국내·외를 오고가며 독립자금은 모으려 동분서주하였고 전쟁을 치를 혁명군대를 조직하였다. 마르띠는 쿠바의 단결력만이 순리에 불응하며 기득권을 내세우는 스페인제국에 대항할 수 있다고 믿었다. 뒤늦게 쿠바의 결의된 마음을 읽은 스페인정부의 자유화된 조치와 변화는 이미 쿠바인들과는 거리가 먼 대응에 불구하였고 그들이 열망하고 있는 주권과 국가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가 있을 수 없었다.

본 연구는 쿠바의 독립이 단순히 쿠바가 아바나항구에 정박중인 미국 순양함 메인호의 폭발로 미서 전쟁이 발발하여 쿠바가

얻어낸 반사이익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정정하며 인종과 계급을 초월하여 참여한 독립전쟁속에서 쿠바인들의 자주 민족적 숭고한 정신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참고문헌

Barón Fernández, José(1993), *La Guerra Hispano-Noteamericana de 1898*, A Coruña: Edicios Do Castro.

Fernández Almagro, Melchor(1974), *Historia política de la España Contemporánea*, Madrid: Alianza, T.II.

Forner, Philip S.(1975), *La Guerra hispano-cubano-americana y el nacimiento del imperialismo norteamericano 1895-1902,* Madrid: Akal, traducida por Encina Bodelón Velasco.

Le Riverend Brusone, Julio(1981), *Breve historia de Cuba*, La Habana: Ciencias Sociales.

Martí, José(1946), *Carta a Manuel Mercado, Obras Completas*, La Habana: T.I.

Moreno Fraginals, Manuel(1978), *El Ingenio(Complejo economico social cubano del azucar)* La Habana: Ciencias Sociales, T.III.

Serrano, Carlos(1984), *Final del Imperio. Espana 1895-1898*, Madrid; Siglo XXI de Espana

Thomas, Hugh(1973), *Cuba: la lucha por la libertad*, Barcelona: Grijalbo, traducida por Neri Daurella, T.I.

논문투고일자: 2005년 5월 10일